

##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정도 (Economic Impact according to Health Problems of Workers)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이 영 미

근로자의 만성적인 건강문제는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고, 사업장에서 생산성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만성적인 건강문제 중 우울, 허리통증, 관절염, 속쓰림 증상 등이 생산성 손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감기와 같은 경증의 건강문제 또한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증의 건강문제는 만성적인 건강문제와는 다르게 건강검진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이로 인한 결근을 유발하는 빈도가 매우 낮아 자칫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부분들이다. 특히 생산성 손실의 측정을 주로 결근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결근을 동반하지 않는 건강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조직의 생산성 손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감추어진 부분의 손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와 함께 프리젠티즘(presenteeism)을 측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프리젠티즘이란 근로자가 건강문제를 가지고 출근을 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생산성 손실 정도를 의미한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프리젠티즘을 생산성 손실로 정의하면서 프리젠티즘이 부정적인 현상처럼 통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건강문제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되었을 때 프리젠티즘이 감소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리젠티즘은 현재 동일한 건강문제에서 반대개념인 결근율(absenteeism)보다 더 많은 생산성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손실을 경제적 계산하였을 때, Hemp는 미국내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150억달러에 이르고 하였고, Turpin 등은 건강문제와 관련된 국가적 손실이 4,680억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프리젠티즘에 대한 관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건강문제로 인한 손실부분을 경

제적 단위로 제시하여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프리젠티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도되었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36개 사업장의 근로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인 임의 표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45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횡단적 조사연구(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이다. 2006년 2월 1일부터 동년 3월 30일까지 Stanford Presenteeism Scale 질문지를 이용해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301명만이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본 연구에서는 301명의 자료를 SPSS program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근로자의 남녀비율은 남성이 59.1%로 여성에 비해 더 많았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였으며, 그 중 남성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5.5세, 여성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2.3세였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6.14년이었다.

조사 근로자의 56.6%가 건강문제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가장 많은 건강문제는 위장장애, 허리와 목의 통증, 두통 등의 순이었다. 근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 중 가장 신경쓰이는 건강문제로 지적한 것은 위장장애, 허리와 목의 통증, 간기능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시간은 허리와 목의 통증 5.22시간, 간기능 장애 4.02시간의 순으로 나타났고, 프리젠티즘은 불면이나 수면장애가 41.66%, 천식이 41.25%의 생산성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면이나 수면장애, 당뇨로 인한 결근은 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프리젠티즘은 각각 41.66%, 40.00%였다. 결근율은 결혼상태에 따라, 프리젠티즘은 성별, 나이, 결혼상태, 학력, 수입, 근무기간, 교대근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의 결근 손실비용을 계산했을 때, 허리와 목의 통증 38,109원, 간기능장애 29,382원 순이었고, 프리젠티즘의 손실비용은 불면이나 수면장애 729,359원, 천식 722,065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달간 전체 손실비용은 결근 손실이 140,802원, 프리젠티즘이 8,711,036원이었다. 근로자 개인당 한 달 동안의 결근 손실비용은 천식 1,823원, 호흡장애 1,530원 순이었고, 프리젠티즘 손실비용은 천식 361,032원, 불면이나 수면장애 121,559원, 당뇨 116,697원의 순이었다. 지난 한 달간 개인당 전체 손실비용은 결근 손실이 8,390원, 프리젠티즘이 941,731원이었다.

## 논의

과거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의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채택되어진 것이 결근율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결근율은 건강문제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나타냄에 있어, 프리젠티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생산성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건강문제에 따른 결근율과 프리젠티즘의 손실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근로자 개인당 건강문제로 인한 한달간 손실은 천식이 362,855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불면이나 수면장애 121,559원, 당뇨 116,697원이었다.

이를 외국의 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2002년 미국의 연간 근로자 1명당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비용은 결근 손실 661달러, 프리젠티즘 6,721달러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근손실 약 6달러, 프리젠티즘 손실 약 377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양국간의 경제규모의 차이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중소기업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그 임금이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결과에서 인상적인 것은 불면이나 수면장애, 당뇨는 이러한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손실 비용은 0원이었으나, 프리젠티즘을 포함한 후의 전체 손실액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이는 임원을 요하지 않는 건강문제로 인해 결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직장문화와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염려하는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근로자들이 결근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들이 건강문제로 결근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여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성 손실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해왔던 결근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프리젠티즘)에서 더 많은 손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결근율과 함께 프리젠티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는 결근율을 감소시키고 프리젠티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최근 사업주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따라서 근로자 건강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산업간호사가 프리젠티즘에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 건강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향후 보다 많은 사업주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

Table 1. Economic impact of workplace by primary health conditions at last 4 weeks.

Primary health condition	n	Economic impact of absenteeism	Economic impact of presenteeism	Total economic impact of workplace
Allergies	21	5,094	558,480	563,574
Arthritis or joint pain	17	5,148	543,157	548,305
Asthma	2	3,646	722,065	725,711
Back or neck disorder	40	38,109	633,448	671,557
Breathing disorder	9	13,776	583,487	597,263
Depression, anxiety or emotional disorder	15	3,889	679,762	683,651
Insomnia, sleep disorder	6	0	729,359	729,359
Diabetes	6	0	700,184	700,184
Hyperlipidemia	19	9,596	573,506	583,102
Liver function disorder	35	29,382	551,395	580,777
Heart or circulatory disorder	21	5,557	523,054	528,611
Migraines, chronic headaches	30	6,321	682,680	689,001
Stomach or bowel disorder	69	4,968	622,174	627,142
Other	11	15,316	608,285	623,601
Total	301	140,802	8,711,036	8,851,838

Denomination : won

Table 2. Comparison of economic impact per one worker at last 4 weeks.

Primary health condition	Economic impact of absenteeism of one worker	Economic impact of presenteeism of one worker	t-value
Allergies	242	26,594	18.348**
Arthritis or joint pain	302	31,950	19.832**
Asthma	1,823	361,032	8.994**
Back or neck disorder	952	15,836	32.349**
Breathing disorder	1,530	64,831	13.535**
Depression, anxiety or emotional disorder	259	45,317	21.183**
Insomnia, sleep disorder	0	121,559	25.640**
Diabetes	0	116,697	16.516**
Hyperlipidemia	505	30,184	16.558**
Liver function disorder	839	15,754	16.421**
Heart or circulatory disorder	264	24,907	16.617**
Migraines, chronic headaches	210	22,756	29.179**
Stomach or bowel disorder	72	9,017	31.725**
Other	1,392	55,298	8.636**
Total	8,390	941,732	34.586**

Denomination : won

\*p>0.05, \*\*p>0.01